



2020년 3월 1일(제971호) 시순 제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말씀으로 산다.”

2015년 12월 4일, 저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으로 사제로 서품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제 서품이 거행되는 제단 아래 엎드려 일평생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제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정했던 서품 성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였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의 손을 빌려서 하실 따름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 나가시어 유혹자로부터 유혹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고, 그 바탕은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며,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지 못했고, 그 이유는 말씀이 멀어져 있음을, 곧 마음에 말씀을 품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까?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 부르는 이 사순시기,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보심으로써 조금 멀어진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떼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현(모세) 신부
하상비오로(53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창세 2,7-9; 3,1-7
- 회 답 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제 2 특 시 로마 5,12-19
- 복음 본궤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복 음 마태 4,1-11
- 영 성 제 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장광수 바르나바



성인명: 장광수 바르나바 (鄭光受 Barnabas)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802년

장광수(鄭光受) 바르나바는 경기도 여주 부곡(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함으로써, 신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1801년에 순교한 윤운혜 루치아는 그의 부인이고, 정순매 바르바라는 그의 여동생이다.

장 바르나바는 입교한 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양근에 살던 윤 루치아와 혼인을 하였는데, 이때 천주교 신자가 아닌 그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혼인 문서는 주고받을 수 없었다. 또한 집안에서는 교리의 가르침을 지킬 수도 없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1794년 말 조선에 입국하자, 장 바르나바는 한양으로 올라가 신부에게 성사를 받고 교리도 배웠다. 그리고 신부의 명에 따라 김건순 요사팻에게 편지를 전하였으며, 고향 인근에 교리를 전하면서 비신자를 입교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장 바르나바의 부모는 여전히 천주교 신앙을 버리고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그는 1799년 아내와 함께 여주를 떠나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그런 다음 자신의 집 한편에 교회 집회소를 짓고 주 야고보 신부를 모셔다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이곳을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때 그의 여동생 장 바르바라도 그들 부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왔다.

본디 상당한 학식을 지니고 있던 장 바르나바는, 교회 서적을 배껴 신자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한 아내와 함께 예수님과 성모님의 상본이나 목주 등을 제작하여 교우들에게 팔거나 나누어 주었고, 가까운 교우들과 자주 만나 함께 교리를 연구하거나 기도 모임을 갖곤 하였다. 그들 부부는 자식에게도 일찍부터 교리를 가르쳐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다.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처형인 윤점해 아가타가 체포되자, 장 바르나바는 자기 부부도 머지않아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박해 초기에 그는 이미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있었고, 2월에는 그의 집을 급습한 포졸들에게 아내 윤 루치아가 체포되었다. 당시 장 바르나바는 한양과 지방을 오가면서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포졸들이 수사망을 좁혀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의 피신을 단념하고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아가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였다. 그때가 1801년 음력 5월 초순이었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장 바르나바는 여러 차례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신자들을 밀고하라는 명령도 거부하였다. 그런 다음 형조로 이송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고향 여주로 이송되어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빵을 만들어봐



카인의 돌이야.	나의 몸으로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배 불릴 거야.
아니.	
난,	나의 몸으로.

상화이야기

기도하는 제롬 성인



제롬 성인은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인으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금욕적이고 청빈한 생활로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많은 귀감으로 칭송되던 성인이다.

보쉬는 이 그림에서, 은둔하면서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제롬을 그렸는데, 보쉬 특유의 약간 기형적이면서도 신비한 배경 속 인적없는 곳에서, 두 손을 모은 채로 십자가의 자세와 비슷한 자세로 기도하는 성인을 그렸다.

성인이 기거하는 곳은 쓰러질 것만 같은 건물터미로, 바로 옆에 있는 물웅덩이에는 예수님의 상처를 연상시키는, 림이 떨어진 붉은 호박 같은 과일이 떠 있고, 성인의 발치 나무터기에는 성인의 붉은 겹옷(추기경을 연상시킨다)과 그의 책과 모자가 있다.

학자들은 이 그림이 예수님의 수난을 모방함으로써 수난에 동참하는 정신을 잘 드러낸다고 분석하는데, 우리 삶에서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순 1주를 맞아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수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히에로니무스 보쉬, 1482년 작
 피넬 위 유희, 77x59cm
 긴트 미술관, 벨기에

김은혜(앨리스넷)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시순 제1주일: 해군교육사 이슬기 신부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